



# 바람은 길을 묻지 않는다

김우용 시집

## 소개글

〈바람은 길을 묻지 않는다〉은 삶의 표정을 담아 써왔던 시편들을 엮은 시집이다. 시인은 소리 없는 시어의 세계에 귀 기울이려 한다. 느지막이 다시 앞을 피우자니 버겁고 감정조차 마른 것 같아서 아름다운 시 한편을 써낼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난해하지 않고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서술한 진솔한 시어는 편안함과 정겨움을 느낄 수 있다.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통해 보이는 시적 대상을 자기화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느껴지는 아픔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이 담담하게 그려지며 깊은 울림으로 남는다.

### 〈저자소개〉

저자 김우용은 강원도 출생이고 호, 필명은 靑山이다. 계간 '문학광장' 시 부문에 당선됐다. 춘천문화방송 국장을 거쳐 현재 ㈜하나네트웍스 대표이다. 한국문인협회 회원, 강원문인협회 회원, 포엠스퀘어 동인, 수향시낭송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에 시집 〈바람은 길을 묻지 않는다〉 동인지 〈초록을 만나다〉 〈바람이 분다〉가 있다

# 목차

1 귀로	7
2 성에꽃	8
3 초승달 뜨던 저녁 무렵에	9
4 떠나야 한다는 것	10
5 춘경(春景)	11
6 고목古木	13
7 고요에 대하여	14
8 블랙박스	15
9 비 오는 날	16
10 늪어 간다는 것은	17
11 요양원에서	18
12 키아마 비치에서	19
13 바람은 길을 묻지 않는다	21
14 유리성	23
15 통화 엿듣기	24
16 숲으로의 초대	26
17 탈출	27
18 눈 장마	28
19 하산	30
20 안경을 닦으며	31
21 분서(焚書)의 기억	32
22 밥	34
23 스마트폰	36
24 우체통	37
25 안식	39

26	위기에서는	41
27	십이월의 유희	42
28	거울 받에서	43
29	물안개	44
30	새	45
31	칫솔	46
32	거울소나타	47
33	장끼의 죽음	48
34	태엽을 감으며	50
35	공지천을 건너며	51
36	숲	52
37	첫눈 오는 날	53
38	추억에 대하여	54
39	산을 볼 때면	55
40	두레박 소리	56
41	뜨락에서	57
42	알코올 병동에서	58
43	호두나무	59
44	해금	60
45	담배	61
46	눈물	63
47	달이 외로울 때	64
48	해 붉게 떠오르는 아침	66
49	봄은 그렇게 오는 것이다	67
50	현금자동인출기	69

51	여울목에서	71
52	그림자	72
53	저물 녘 그 사이	73
54	백로	74
55	어느 날 오후	75
56	가을의 징후	76
57	풍경	77
58	어느 나들이	78
59	봄날 아침에	79
60	자전거의 내력	80
61	그녀의 전화를 받고서	81
62	아내	82
63	아침이 오는 것에 대하여	83
64	인사발령	84
65	해와 달 사이	86
66	도시의 여름	87
67	구절초	88
68	짝사랑	89
69	눈 꽃	90
70	백낭금	91
71	인연	92
72	명상	93
73	소양강	94
74	아버지	95
75	꿈속의 어머니	96



이 밤이 지나면 일과 이별입니다  
평생을 오로지 한우물만 파며 머물던 일터  
나는 이제 밥그릇을 내려놓고  
일터에서 내려갑니다

그곳에는 아직 피지 않은 청춘이 텅굴고  
양지꽃을 피우려 했던 간절한 마음도  
때로 먹구름과 안개 휩싸인 불투명한 일에도  
평생, 그곳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 기어 오른  
길이었습니다

서투르게도  
술하게 넘어지며 엉기며 달려온 시간  
이제 별 탈 없이 내려가니  
아름답지 않습니까

막 집으로 돌아와  
지친 몸을 침대에 눕히자  
청년이 보입니다

거울 속에 박힌  
그, 사십년 전의 나  
그립습니다

아침에 깨어 보니  
표정없는 유리창에  
꽃이 만발하였다

쭉쭉 뻗어 절개 굵은 선 위에  
습성처럼 매달린 선연한 꽃  
무슨 사연이 있기에  
저토록 하얀 꽃을 피웠는가

냉한 추위에 물려  
오롯이 피어난 꽃  
절정으로 치달는 순간마다  
아픔도 있었으리라

엄동설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예꽃

산다는 건  
혹독한 고통 속에서도  
꽃송이 하나 피우는 일이다

누가 하늘 벽을 넘어  
달을 훔쳐 달아났을까

화사하게 꽃 피웠다가  
금세 싸늘해져 내리는 저 달의 눈이  
애처롭게 나를 바라본다

구름은 보트처럼 떠다니고  
일시에 몰려오는 어둠이  
달그림자 속으로  
나를 끌어들이고  
어떡할까  
망설이는 사이

저녁은  
깊이깊이 능선 뒤로 돌아눕고  
개 짚는 소리만 요란하다

깊은 산골짜기 바위틈에  
잔설이 몸을 숨기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봄비가 촉촉이 내릴 때  
바위를 부둥켜안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큰 바위 뒤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티었으리라 버티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먼 여정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잔설은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물이 되어 강으로 떠나기 전에  
유연처럼 말했으리라

울지마라  
가야 할 시간이다

나뭇가지에 꽃눈이 탕탕하게 커지고 있는 이른 봄 아침  
산기슭 양지 벌에 암탉이 알을 놓고는  
열공, 열중을 다해 알을 품을 준비할지 모르는 일  
조심조심 낙엽을 치우며 주변정리를 한다

지난봄 주렁주렁 청 매실을 달고 있던 나무는  
아직 핏기없이 뼈마디만 앙상하게 서 있다  
붉은 단풍잎은 잔설 속에 미라처럼  
그 희고 가벼운 무게에 눌러 꼼짝 못하고  
백골처럼 힘겹게 누워 내세를 기다린다

한 줄기 훈기가 머리 위로 지나가고  
암탉의 해치는 소리가 들리는 정오 무렵  
그 퍼덕이는 날갯짓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깃들어  
먼 미래에 넣은 정열이 담겨있는 보금자리를 위해  
그는 무료함과 고요를 이겼다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곳곳이 지키는 힘  
그곳은 가장 평화로운 집이 있다  
알을 품기 위해 조심스럽게 정리하는  
어미닭의 마음 씻는 일이  
내게도 낯설지 않게 다가와 있다

먼 이국땅으로 시집가는 딸아이  
그녀와 나도 주변정리에 바쁘다  
서로의 정을 떼고 갈길을 찾아 떠나는  
이젠 스스로 날아오르게 할 때이다

늦은 오후,  
동안거를 마치고 천천히 나오는 젊은 비구니를 본다  
그의 뒤를 따라 나오는 보드라운 입술들  
한 번도 젖꼭지를 물어본 적 없는 입술들이  
일제히 소리쳐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뼈악,  
그의 겨드랑이에 봄이 와 있다



이른 봄,  
높고 깊은 산에 태어나  
뜨거운 여름을 여러 번 만났고  
오랜 세월 달과 해를 번갈아 만나며  
모든 좋은 나날이었는데  
오늘은 검붉게 익어 우뚝 서 있다

뚝심으로 살았을 황폐한 칠갑  
오롯한 기상 그러나 무수한 세월에  
거무스름하게 서 있는 음예(陰翳)의 무늬들,

환한 세상이었을까  
캄캄한 세상이었을까  
숨죽이며 기어오르는 등나무 푸른 줄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몸을 붙잡아 주어도  
왠지 그의 몸은 무거워 보인다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무거움으로  
눈물이 수없이 덧칠되어 무겁게  
땅 속 깊이깊이 박혀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며 냉하고도 고요한  
마지막 눈물 적시며 동안거를 끝내고  
이제 막 표연히 참선에 들어서는 고승처럼  
세상 모든 불빛은 잔잔해진다

달빛 가득한 밤  
벗을 것 다 벗어놓고 서 있는 저 늙은 나무  
어쩌면, 내 전생이었을지 모를 저 고목에게  
술 한 잔 권하고 싶다

산은 적막하다  
적막은 숲이 만든 것이 아니라 컴컴한  
산그늘이 만든다

높은 산 우거진 숲에  
떠나간 새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탱탱한 꽃봉오리  
향기롭게 피기까지

푸르른 날, 콩닥 뛰는 새가슴으로  
사랑하기까지

폭발이 오기 전까지  
늘 적막이 흐르는 것은 매번  
번개가 지나간 후에 알게 되는 것이다

조금만 집착을 버리면 될 것을  
조금만 욕심을 줄이면 될 것을  
그 가속의 시간이 빚어낸  
돌발적 추락,  
마지막 생을 마감한 한 육신이  
벼랑 아래 검붉게 누워있다

탄탄대로  
한때 잘나가던 출세가도  
그 속도의 쾌락에 이끌려  
유리창이 터져 흩어지고 우그러진 살과 뼈  
사선 저 너머로 끌려가는  
고급 승용차 한 대.

비 오는 날,  
한없이 투 두둑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바르면 허영게 산화되는 과산화수소액 같은  
소독약을 생각한다

마른 창을 따라 흘러내리는 저 빗방울이  
소독약이라면  
구석구석 쌓여있는  
욕망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더러운 세상 때에 퍼부어  
아픔도 씻어내고  
저항할 수 없는 세상의 벽 앞에 우는  
먼 이국에서 온 그녀의 눈물 또한  
치료해줄 수 있을 텐데

어쩌다 세상 밖으로 버려진 아이들의  
아픈 설움도  
씻어 낼 수 있을 텐데

비 물러간 뒤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해처럼.

늪어 간다는 것은

가슴에 새 한 마리 기르는 일이다  
미명의 하늘을 열고 그 새  
매일 마다 멀리 보내는 일이다

나이 들어가며 사는 맛  
나를 씻어 내려 비로소  
새처럼 가벼이 하늘을 날 수 있을 때

흐르는 물을 쫓아 물 따라  
물에 순응하며 사는 맛  
그 맛이 진짜 사는 맛이지

사는 것이란  
들꽃 같은 것

풀포기 하나라도  
애당초 내 것이 아니었으니  
떠날 땐 훌훌 털고 일어서야지

간결하고 단순하게  
산뜻하게  
그렇게.

뜨거운 여름 한낮  
한 소나기 퍼붓다 지나간 사이  
하얀 시트 위 시든 꽃잎 한 장  
시들어 누워 있다

물안개 자욱한 강을 건너  
헤적헤적 바다로 흘러내려 가는  
시든 꽃 한 꽃송이

스러져가는 그에게도  
화려하게 꽃피운 순간들이  
왜, 아니 없었겠는가!

새벽부터 저물녘까지  
고된 일터에서 시련을 딛고  
끝을 향해 달려왔으리라

깜박, 흐린 잠을 자는 그녀  
가만히 귀 기울이면 깊게 패인 이마에는  
다 담지 못할 수많은 이야기가  
사막을 걷는다

구름 끝자락에 그네를 걸고 간당간당  
시간을 끌어당겨  
그네를 탄다

창문을 넘나드는 햇살은  
그녀의 주름진 이마에 나비처럼 앉아  
산들산들 춤을 추고 있는데.

바다의 소리 끝에서  
오랜만에 아내 그리고 두 딸과 함께  
호젓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바다는 호수처럼 고요하고  
햇살도, 한 줄기의 바람도  
우리 곁에 훈훈 붙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복에 겨운 단, 한 생각  
이제 죽을 때까지  
이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리저리 손가락 꼽다가 머리를 ‘툭’ 떨군다  
다시 꼽아 보아도  
한주먹이 안 되는 잔량의 틈

그런 그 순간  
머릿속은 유난히 빠르게 시간을  
가속을 더하는데  
까르르, 해맑은 두 딸의 웃음소리는  
저 하늘빛 청음이 되고  
아내의 기쁜 표정은  
향기로운 백화난만(百花爛漫)이 된다

나는  
예측할 수 없는 내일 앞에서도  
한 뼘도 안 되는 하루에서도  
주연처럼 오늘을 산다

\*키아마 비치 : 시드니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마을

산길이 숲 사이를 올라간다  
한 사람이 그 길을 따라 올라간다  
산길은 길이 있어도 없고  
없어도 있는 것이다

앞서 달려간 사람들처럼  
나도, 그 인생길을 따라간다  
인생의 길이란 있어도 없고  
없어도 있는 것이다

인생의 길이란  
만난 적도 약속도 없었지만  
하나의 길 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늘과 땅과 숲과 사람과 길이 만나  
하나가 되어 한 시대와 동행하는 것이다

바람이 날아오고 바람이 날아간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눈이없어도 방향을 잃지 않고  
어두운 길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바람,

나는 언제쯤 바람처럼 길을 묻지 않고  
구부러진 길을 달려갈 수 있을까



혹한의 유리창에  
뿌연 안개 한 무리처럼  
하얗게 성을 짓는 밤

강바람에 안개가 들썩이면  
온기 없이 견디던 가파른 유리벽은  
독거노인의 그 가느다란 숨결이  
줄기로 앞으로 꽃으로  
그려집니다

시야의 경계를 훌쩍 넘은, 저곳에는  
새도 날고 얼룩말들도 밤 속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지치고 위태로운 사람들  
만조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  
제힘 하나 견디지 못하는  
희미한 별들이 그려집니다

한밤중에 잠이 깨어보면  
별은 더 찬란히 빛납니다  
그 반짝이는 무늬 속  
거기에도 한세상이 있습니다

나는 반짝이는 유리성에 누가 사는지 압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누군가와  
내 모습이 보입니다

빠죽한 햇빛이  
그 속으로 들어가고  
아슬한 그들도 들어가고  
나도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목포역에서 KTX에 오르고 보니  
빈 좌석 없이 거의 꽉 차있다

중절모를 쓴 노신사와 사춘기 또래의 여자아이들  
유모차에 잔뜩 짐을 싣고 탄 아주머니  
뒤쪽에선 아기의 응석 부리는 소리가  
나직하게 넘어온다

얼마나 지났을까  
요란하게 짚어대는 소리

‘어짜쓰까’  
‘니가 우짤일이가’

분간 없는 속도 속으로  
날카로이 잡음이 끼어든다

여전히 통화는 끊이지 않고  
내달리는 기차는 광속으로 짚어대는데  
그 속도 속의 또, 다른 질주가 내달린다

‘나가 지금 차에 있간는디 우짜라고 지랄이고?’

대전을 지나 서울로 내달리는 KTX,  
너도 달리고 나도 달리는 열변 속에  
걱정으로 치달는 통화는 이제 종착역

‘니 맘대루 해부러라 씨발년아!’

나는

읽던 시집을 가방 속에 넣고는  
슬며시 차창커튼을 내리고 눈을 감는다

나는 숲으로 간다  
푸른 나뭇잎이 흔들리는 산마루  
푸른 숲은 그냥 숲이지만  
나는 푸른 빛 속으로 들어간다

각각의 모양과 다채로운 색깔의 나뭇잎  
세상이 제 모습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도 그 속으로 들어가면  
메말랐던 가슴은 파랗게 이파리가 돌아난다

모든 숲은 영혼의 낙원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또 다른 영혼이 깃들어  
만질 수 없는 빛은 먼 기억의 끈으로  
삶의 깃털을 달아주고

광대한 숲으로  
하늘 아래 또 다른 정원을 만들고  
사람들을 그 곳으로 끌어들이었을 때 비로소  
이슬처럼 맑아진다

가장 깨끗하게.

어느 날, 나는 드디어 올라미를 풀고  
탈출에 성공했다

고달프고 지루한 구속의 굴레를 벗고  
그토록 집어 던지고 싶었던 밥그릇을  
속 시원히 집어 던지고 나왔다

무수히 내 발자국이 종종걸음으로 찍히는 동안  
피 말리는 온갖 스트레스와 싸워왔던  
그 독한 사슬을 끊고  
들뜬 마음으로 막, 그 굴을 빠져나왔다

청사로비를 걸어 나오면서  
청춘을 송두리째 바쳤던 수많은 기억과  
손때 묻은 흔적들은 남겨 두고  
설렘과 두근거림으로 조심조심 걸어 나왔다

내가 없는 동안 푸른 들녘은  
콘크리트 정글로 우거져 있다

첫발을 내딛는 순간  
발바닥 밑에서  
위풍당당 소리 우렁찼던 곳  
한때 목숨처럼 일했던 그곳 돌아보니  
내 발자국은 어느새  
점점이 따라오다 없어지고 있었다

사람이 사는 것이란  
잠시 앉았다 홀연히 떠나는  
나비와 같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나는 다시 환생처럼 웃기를 여민다

오늘,  
뭉게구름이 유난히 편안하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

이른 아침부터  
고삐 풀린 눈들이  
하얀 갈기 휘날리며 쏟아진다

처음엔  
하얀 웃음 던지며 내리더니  
점점 사납게 내리는 눈은  
추위에 떠는 차가운 도시를  
사정없이 하얗게 물들인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눈시린 눈빛의 까마귀 한 마리  
안쓰럽게 나뭇가지에 앉아 있다

눈이 오면  
한 해의 농사가 풍년이 들고  
백설은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낸다지만  
저 새들에겐 창살 없는 감옥이리라  
허기진 듯 내리는 눈은  
전혀 지친 내색을 드러내지 않고  
진종일 온 도시를 뒤덮는다

대체 누가 알았을까  
와르르 무너지 듯 눈덩이가 쏟아질 줄

잠시 숨 고른 까마귀  
쏟아지는 눈을 헤치며  
어디론가 날아간다



뭉임에서 풀린다는 것이 이런 맛이란 걸  
그러나 또 다시 뭉일 수 있다는 걸  
그 어느 누군들 알았을까

바위처럼 무겁던 환상이  
허공에 뚱뚱 떠다니는 설렘을  
어둡고 지루한 형기를 벗어 버리고  
가벼워지는 풀림의 기분을,

저 높은 산 위에서, 언덕에서  
어지러운 격투를 끝내고 썰물처럼 쏟아져 내려간다

산 커브를 돌아 잠깐 호흡하는 사이  
창가에 비친 가칠하게 구겨진 얼굴  
꼭 파르티잔 같다

그동안 산을 닦은 얼굴  
산의 높이에 상관없이 주르르 내려오면  
찰나의 시간이라 생각되는 것은  
망각의 무게 탓이다

산비탈 입구에 있는 찻집에 내려  
차 향기에 입술을 적시는 동안  
허기진 눈동자에는  
어느새 산이 부서져 내리고 있다

눈이 부시도록 맑은 날  
내 눈에 맞는 새 안경을 찾아왔다

내 나이테만큼이나 도수 높은 안경  
대낮에도 잘 보이지 않던 안경알이  
깔끔하게 깎은 자국이 신령한 빛을 띠며  
의기양양하게 나를 바라본다

아침에 나갈 때마다  
먼저 안경 닦이 손수건을 챙긴다

밤에는 어두워서 누구나 잘 안 보인다지만  
내 눈이 흐려 잘 보이지 않았던 세상은 안경을 쓴 후로는  
녹슨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속을 줄 뻘히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표를 찍는다

누구나 한 번은 오르고 싶은 정상  
뱀처럼 기어서 오르고 나면  
저 고고한 높이에서  
말의 그림자까지 스르르 지워지고  
사람들은 열리지 않는 그 문 앞에서  
허공에 뿌려지는 말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결국 개처럼 기다린다

나는 주섬주섬 손수건을 꺼내어  
안경 유리알을 닦는다  
멀리서도 맑게 잘 보이도록.

개는 불청객이거나  
도둑이 들었을 때 짖는 것인데  
사느라 조용하다 싶으면  
어디선가 느닷없이 짖는 소리가 들린다  
전부터  
나눠 먹기 좋아하던  
제국주의자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판 위에 한반도를 펼쳐놓았다

아직도 기억하는 일천구백오 년 칠월  
미국 전쟁광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수상 가쓰라 타로 간에 비밀로 맺어진  
개 같은 협정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모른척하고  
일본은 미국의 동남아 침략을 눈감아버리곤  
담 넘어 들어가 각자 한 처녀씩  
강탈을 한 기억이 남아 있다

그리곤 가끔 향수에 젖어  
징그러운 털복숭이 두 놈이 앉아  
그때가 그림지 않으냐고  
또 한 번 혈기 왕성하게 담 넘어를 생각에 미쳐  
식민의 망령이 발작하는 족속들  
아, 독도  
저 섬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경복궁에도 검은 발자국 남으리.



하루 세 번 꼬박꼬박 먹으면서도  
때만 되면 허공을 느끼게 하는 밥

밥그릇에 매어 살다보면 어쩌다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알약 하나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뭐,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요  
꾸룩꾸룩 밥 달라고 졸라댈 때마다  
또 때가 되었구나 하지요

생각해보면 사는 것이란  
희로애락을 비빔밥처럼 비비는 것 같습니다  
고춧가루 벌겍게 넣어 무친 젓갈처럼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지내 놓고 보면 다 맛을 위한 양념이었지요

가끔,  
사람은 왜 밥을 먹는가 하는 생각됩니다  
살기위해 먹는 것인가  
살려고 한다면 왜 사는지  
한 그릇의 밥을 얻기 위해 나는 또  
몇 번이나  
자신을 속였는지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에 없는 비겁한 선을 서슴없이 넘었는지  
생각해봅니다  
아무리 사는 게 고달파도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마땅히 했어야 할 약속을 지켜왔겠지요

어쩐니까,  
밥 한 그릇에 매달려 있는 목숨이라 해도  
양심을 목구멍에 가둘 수는 없잖아요

힘들 땐, 두 눈 질끈 감고  
허연 김을 토해내며  
후~ 하고 불어보세요.

하루 또 하루  
매일 마다  
가슴 속 깊이 피어나는 꽃 하나

만지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키운 자식도 흩어지는 바람이었던가  
그리움 뒤편에 무지개처럼 떴다가는  
꿈, 사라진다

몇 년 전 공부를 더 하겠다며  
민들레씨처럼 날아간 딸  
밤낮으로 내 안에 머무르지만  
결국 안개였다

하늘 아래  
내 눈에는 너무나 먼 거리  
그 사이가 이별이었네

때때로 반짝이는 별을 볼 때마다  
보고 싶은 마음은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간간히 딸의 목소리가  
가로막힌 먼 바다를 건너와  
내 귓가에 속삭인다

"아빠 사랑해요"

장승처럼 서 있는 빨간 우체통 옆에서  
한 여자가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다

한 때는  
입이 닳도록 애절하게 던지는 연서도  
가슴 아픈 부음도  
아, 입을 벌려 받아 넣던 그 입속은  
이제 거미들이 차지한 폐허로 채워 버렸다

어느 누구를 닮지 않고  
언제나 웃으며 받아 안던 우체통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스마트 전자파에는  
영 무용지물이다

그래도 말은 다할 수 없고  
문자로 대신할 수 없는 고백은  
이곳저곳에서 분주히 갈 곳을 찾는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이 편지 한 장이  
이 종이봉투 하나가  
그들을 다시 붙잡아 댈 수 있을까  
분주히 돌아가는 한세상 인간사  
어찌 그를 닮을 수 있으랴

그대여, 우체통을 발로 차지 마라  
통이 울린다고 신호가 가는 게 아니니  
펜을 들어라, 펜을 들어  
다하지 못한 사랑의 편지를 써 보라

그대의 간절함은 이미 통을 떠나 소원으로  
어디선가 다시 태어나리니.

안식이란 건 이런 것일까  
비 갠 오후  
대청마루에 몸을 눕히고  
나른한 햇살 아래 누워 있을 때  
어머니 품에서처럼 나는  
이것이 안식이로구나 했다

그리고, 땀을 식히던  
피정의 어느 날  
나는 텃밭에서 뜻밖에  
새싹을 보며 안식을 떠올렸다

땅속 깊은 곳에서도 잠잠하게 숨 쉬며  
씨방을 부화시키기에 열중한  
보드라운 싹을 내미는 쥐 눈이 콩을 보면서  
물을 만난 고기처럼 나는  
잔걸음으로 이랑 사이를 내달렸다

흙투성이가 된 채 땀 흘려  
내 두 손으로 뿌려진 씨앗들이  
텃줄을 끊고 갓 부화하여  
환한 햇살을 향해 태어날 때,

나는 생명을 받은 산파가 되어  
양 손에 모종을 들고  
안식의 순간을 온몸으로 받고 있었다

위기에서는 위기를 넘어야 한다  
강을 넘고 산을 넘고  
밀려오는 모든 파도를 넘어야 한다

위기에서는 먼저 나를 넘어야 한다  
과거의 굴레를 넘고 망상을 넘고  
허풍을 넘어 진정 나를 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기는 위험한 기회일 뿐  
새로운 시작이다  
그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과보(果報)와의 종결이자  
뫼비우스의 꼬리이다

위기에서는 기죽지 말고 탕기 분천 별절게 일어서  
새로운 길에 꽃씨를 뿌리는 것이다  
꽃씨를 뿌린다고 다 꽃을 피우는 건 아니다  
귀를 기울이고 바람 불어 숲이 흔들리는 소리를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

위기는 언제나 닥칠 수 있다, IMF 때도 그랬고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될 때 그랬던 것처럼  
위기는 세상에 없는 길을 찾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또 악법을 만든다면  
당신의 밥줄도 보장할 수 없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약이며 독이다

쉿! 저기 저 사람  
조심해!

시곶바늘이

봄, 여름, 가을을 지나  
종착역을 지나고 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숲 속의 새들은 어디론가 날아가고  
낙엽만이 뒹굴고 있다

- 그날 오전 -

산에는 아무도 없다  
꽃피는 봄날도 가고  
해 뜨는 시각에 맞추어 팔랑이던 단풍도 끝내  
발자국만 남긴 채 떠나고  
미친바람이 세계 뒤척일 때면  
눈으로 안 보이는 저 편 해가  
한 곳만 바라보면서 다가온다

겨울은 지루하다  
눈꽃으로 덧칠하는 십이월  
달빛 속에서는 저절로 삭혀지는지  
적적함은 오히려 기대감이 되어  
내 소원 하나를 빌어본다

세월 지나 내 몸의 나이가 늘어나면  
기억 속 많은 사연도 희미해져  
저 한 장의 달력과 함께 깨끗이 비워지면  
그 빈자리는 새로운 이름패 하나 걸릴 것이다

1

소한, 대한이 지난 지 오래인데  
아직도 한파가 호되게도 맵다  
땅이 밀어내고 하늘이 누르는 이상기후  
자라목처럼 잔뜩 오그라진 수은주  
하늘은 희뿌연 눈을 토한다  
열린 허공에 쏟아지는 폭설, 그 아래  
하얗게 지우며 사라지는 길,  
나는 활공의 날개를 활짝 펼친다

2

계절은 곧, 떠나갈 겨울과 일별 한 뒤  
햇빛에 꿈틀거리는 노숙자들과  
먼 곳 떠나가는 철새들이  
계절 사이에서 엇갈린다  
올해도 어김없이 철새들은 날아왔고  
차가운 절망 속에서 피는 고드름을 보았다  
하얗게 빼만 남은 꿈 하나가  
희뚝희뚝 솟는 겨울이다

호수 위에 외로운 돛 하나  
오롯이 솟아오른 점 하나

쏟아져 내린 소양호 물결은  
수많은 언어로 썼다 지우고 또, 써 내려가며  
애잔하게 부르더니, 급기야  
제 발자국이 아쉬운 듯 다시  
되치는 물결이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끄덕 흔들며 간다

강물은 시간을 찾아 흐르는 일  
내 뜻대로 흐르지 않더라도 초조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한 생은  
샘에서 솟아나 바다로 가는 길  
물길이 그러하거늘 어찌  
삶인들 다르겠느냐.

하늘을 나는 새들의 날갯짓은  
추락하지 않으려는 간절한 발버둥이다

이글거리는 대장간처럼  
끊임없이 바람을 푸우 푸우 불어넣는 새들의  
풀무질 소리

피스톤처럼 끊임없이 온몸을 흔들며  
새들은 어디로 가나

머얼리 하늘에서  
바라보는 신의 시선은  
수심이 가득 찼다

발버둥 쳐도 끝내  
벗어날 수 없는 권력의 손아귀

그러나 난 오늘  
그림자를 떨치고  
하늘로 비상하는 한 마리 새를 본다

땅에서 발 떼었으니  
그는 살았다

몇 년 째 하얀 새치를 뽑던 어머니  
 뽑는 칫수가 잦아지더니, 어느 날 부터인가는  
 칫솔로 머리칼에 칫을 하기 시작한다  
 구석구석 마사지하듯 골고루 바르고  
 한 올 한 올 정성껏 뒤집어 틀니 닦듯이  
 머리에 염색약을 바른다

거울을 아무리 뒤집어 봐도 뒤는 보이지 않는데  
 등 뒤엔 하얀 나비가 살고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평생 날지도 않는 그 나비의 날개를 생각하며  
 분을 바르고 루즈를 바른다  
 홀로 하얀 머리에 덧칠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  
 난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코 지나쳤다

어느새 나도  
 거울 앞에 서서 칫솔을 들었다  
 팔을 비틀어 뒤를 넘기는 힘겨운 칫솔질  
 얼마나 힘드셨을까  
 검게 만든 화장 뺄 걸모습에  
 난 그저 어머니가 정정한 줄만 알았다  
 생전에 자식농사 잘 지어보겠다고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하얗게 말라버린 어머니  
 담배 한 대 피워 물고 바라보는 허공엔  
 어머니 얼굴로 가득 차있다

여름내 흐르던 물줄기가  
혹독한 추위와 일전을 치루기 위해  
서로의 몸을 꽂 뭉치고 있다

조용히 흐르는 산골짜ก 개울물과  
웅웅거리며 몰려가는 도시의 소음까지  
투명한 깊이로 찍어내고  
결빙한 건반 아래 춤추듯 물결이 인다

그 투명한 얼음을 본다  
지상에서 잠시 머문 한순간처럼  
우리의 생이 이미 스며들어  
저와 같이 결빙됐을까

꼬불꼬불 돌아가는 불면의 레코드처럼  
밤새 불어온 거친 바람과 뒤섞여  
얼어붙은 단단한 결정체처럼 나도 어느덧  
내 몸을 여미고 있다

도심 한복판

꽁꽁 언 길 위에 웅크린

형형색색 무늬의 새 깃털이 보인다

햇빛 쏟아지는 길에서의 영롱한

색을 본지 얼마인가, 그 매서운 선달 아침에

버스에서 만났던

화사한 코트의 여인이 길 위에 누워있다

아직 체온은 남아 있다

영롱한 깃털에서 뿜어대는 화려한 빛

어찌할 바 몰라 망설이는 사이

‘약 먹고 죽은 것 같으면 그냥 버리시세요’ 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헤집고 지나간다

순간

수백, 수천의 생각들이

곧게 뻗은 장끼 깃털에 나부낀다

아, 어찌다 홀로 먼 길 떠나

여기까지 왔을까

원치 않은 이별은 또 얼마나 애타게 할 것이냐

푸른 하늘을 본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은

야생에서 살아가는 저들에게도

소중하다

분주히 돌아가는 한세상 인간사처럼

영혼도 조용히 달래 주자

달빛 휘영청 내리는 도로에서

레퀴엠 흘러나온다



태업을 감다가 생각한다  
태업에 밥을 주고 나면 돌아가는 시계처럼 결국 나도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온 건 아닌가 하고  
끓주린 태업에 밥을 주며 생각한다  
그동안 나는 밥을 축내며  
얼마나 술한 시간을 죽이며 살아왔는가 하고  
째깍거리는 초침소리를 들으며 생각한다  
피가 마르고 관절이 삐걱거리도록  
내 몸도 끝없이 혹사했으나  
목에 풀칠하기 위해 여전히 나는  
밥그릇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사는구나 하고  
처자식 입에 풀 바르느라 결국  
이골난 호구 질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쉽 없이 돌아가는 시계바늘처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아가는 내 육신도 결국  
태업처럼 밥 없으면 죽는구나 하고  
한 끼 식사가 바로 생이로구나 하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이 떨리는 가슴이 쿵쿵거린다

저, 오늘 첫 출근입니다 하고  
몸에서 뽀족이 새순 돌아  
문을 열고 나서던 그 때와 달리  
조심스럽게  
공지천교를 건넌다

이른 아침, 대문 안에 떨어진 신문을 볼 때마다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은 활자사이에서 구직란으로만  
눈알이 날아다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때가 왔다

푸른 꿈을 안고  
청순한 사랑을 키우며 하루에 꼬박 두 번씩  
시계추처럼 넘나들던 공지천 다리

하얗게 눈머리 쌓이는 꿈 어는 날이면  
다리 아래 줄지어 서있는 오리 배들  
오리발이 묶인 채 꼼짝없이 봄 오기를 기다렸지  
이제껏 짝, 잡았던 줄 끊어 놓고  
그 빈 다리를 건너오는 중년의 은퇴길

애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먼 물마루 건너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어롱어롱 들린다

저 숲은 필시  
새들의 자궁이었을 게다

새들이 품던  
염주 같은 작은 알  
밝은 낮에는 따뜻한 햇살을 끌어안고

까만 밤에는  
숲에 들어  
알의 노른자를 뜨겁게 품었을

하늘을 꿈꾸는 새도  
알은 지상에서 낳는다

날개를 접고 가지 끝에 둥지를 튼  
그 정념의 포란抱卵

부화孵化의 때를 기다려  
막 알을 깨고 나와  
첫 울음소리로 세상을 만나는  
어린 새 한 쌍.

어느새 또 한해가 갑니다  
하얀 첫눈이 새해에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큰 강을 건너가신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당신 없는 세상은 늘 허전하고  
작은 이슬비에도 가슴이 시려옵니다

생전에 겨울이 오면  
두꺼운 솜이불을 펼쳐놓고  
단아하게 바느질을 하시던 어머니  
그럴 때면 나는 눈 위를 구르듯  
이불 위를 뒹굴며 눈 속에 묻혔지요

그런데, 그런데  
눈 오는 날이면 왜 이불 위를 뒹굴고 싶은 것일까요  
이 추운 날이면  
나는 왜, 더 당신이 그리워지는 걸까요

추억이란

차오르는 시간 위에 흩어졌던 영혼들로부터  
잠시 나를  
되돌아보는 것,

이를테면

깎아지는 절벽을 오르다  
또 다른 멍에 하나를 덧씌워  
내 발목을 붙잡는 것이다

오르다 되돌아 내려보면

까마득한 절벽 아래도 투신했으면 하는 것  
그래도  
추억이 아름다운 것은  
다시갈 수 없는 그곳이 있기 때문이다

산은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곳에 왜 발이 묶여 있는지를 탓하거나 불평 없이

새를 품는다

산은 늘 표정을 알 수 없었다

비가오든 눈이 오든 어느 한순간에도

묵묵히 대지를 끌어안은

어버이처럼 숭고하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러했으리라

징용에 끌려간 아버지를 기다리며 허기를 벗기 위해

밤이면 침침한 등잔불 밑에서 샅바느질 했던

어머니도 사철 저 산이었으리라

찬 새벽 붉은 댕기 고쳐 매고 망한 나라의

치욕을 안고 넘어가던 어머니들

굶주리는 자식을 끌어안고 오직, 허기를 메우기 위해

눈물뿌리며 날품팔이도 마다치 않고

그렇게 세상의 꽃이 된 우리 어머니

어머니 젓가슴같이 포근한

저 가을 산

온통 벌겁게 불타는

저 붉은 산에 기대어 자고 싶다

은행나무 옆 우물에서  
주르르, 침병  
깊은 우물 두레박소리가 들린다

여명의 첫 새벽,  
침병이는 우물에서 길어온 정한수 한 그릇 놓고  
난세에 우리 어머니는 무엇을 빌었을까

물동이 이고 자박자박 새벽을 열고  
새벽공기가 찰수록 고통이 올수록  
정성이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믿던  
우리 어머니

새벽마다 올리는 그 간절한 기원이  
당신의 것은 아니라는 걸  
왜, 우린 뒤늦게 알아버린 것일까?  
두레박은 보이지 않고  
침병이는 소리만 귓전을 울린다

그때, 마당 꼬트머리 나무 아래  
한갓지게 거니는 암탉  
한 마리 있었지

지금은  
깊은 수심 속에 기억자로 된 낡은 초가집일 뿐  
우뚝 솟은 앞산 끝자락은  
그때를 기억할까

문을 열면 낮이 익은  
작은 호롱불과 텅 빈  
구석방  
식구들의 흔적들이 보이는 것만 같다

뜨락  
별 머물 자리에 멍석을 찢던 자리  
마침내  
하얀 쪽배를 타고 나타난  
어머니

그는 크고 단단한 체격을 가진 건장한 사내였다 그런 그가 알코올엔 무력했다 마술사 같은 취중의 유혹에 고만 맥없이 걸려들어 술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 종일 병동을 어슬렁거리며 주문을 외우듯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그의 입모양에는 후회와 자성의 몸부림이 들어 있으나 진지한 표정은 없다 초점도 없다 가끔 하늘을 쳐다보고 알 수 없는 웃음을 짓는다 다단계사업으로 잘 나가 돈방석에 올라앉자 주체할 수 없이 올인 했다가 공허하게 쓰러졌다 그는 잊기 위해 술을 마셨다 매일 격렬하게 마시고 또 마시는 사이 마음이 망가지고 얼굴의 표정이 망가지고 영혼마저 망가졌다 이것은 우화가 아니다 현실이다 그 건장하고 튼튼한 그를 이토록 허무하게 끊어버린 힘은 무엇일까,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 들게 하는 보이지 않는 그 힘, 이제 그는 알 것 같았다 술의 노예에서 왜 벗어나야 하는지를 그러나 단주와의 전쟁은 몇 달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는 지금 무정부 상태에서 독한 내전을 치르고 있다

## 호두나무

이른 봄

호두나무 묘목을 들고 텃밭으로 간다

푸르게 달린 열매가 별처럼

탐스럽게 매달리다가

토실하게 살을 찌우고

후드득

떨어지는 생각을 한다

나이 들어도 가슴 한편에는

언제나 꽃 송이 하나 피우는

마음이리라

훗날, 고운 꿈꾸는 손녀가

떨어진 호두를 좇으며

할아버지 기억할 날을

기다리며.....,

드라마 '동이' OST  
'천애지아' 전곡이 끝났다

객석의 요란한 갈채 소리  
환호 소리  
순간  
모든 청중은 일어나 두 개의 현처럼  
웅~ 왕~ 거린다

무엇이든  
귀신같이, 감쪽같이 정점에 서면  
불꽃이 된다  
무대 앞 청각의 그 동선(動線) 사이를 넘어  
오르고 내리며 퍼지는 소리  
그 소리 사이의 진동

저물녘 휘청,  
꿈, 바람, 허공 소리에서  
사선(絲線)의 애절한 반복의 휘돌림이  
온몸으로 전율 일으키며 허공을 긋는 바람소리

내 귀를 시원하게 씻어 내린다

그 줄 하나에  
한생 무덤을 걸고  
바람 소리처럼, 갈채 소리처럼  
뜨겁게 살다간 선율.

노란 금박지가 덮인 참스런 담배필터 속은  
너무 깨끗해 깨물어 보고 싶었다  
새하얀 필터를 꼭 깨물면 구수한 냄새가 배어날 것 같아

호기심에 아버지 몰래 담배 한 가치 꺼내  
뒷산에 올라가 피워물었다

한 모금에 숨이 탁 막히고  
캄캄한 동굴로 떨어지며 땅이 튀어 올랐다  
벽속에 갇히는 갑갑한 속으로  
아버지는 왜 동굴에 갇혔을까

추운 겨울날  
군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담배가 타들어가는 동안, 싸한 맛으로 사는  
아버지도 이렇게  
쭈글하게 말라갔을까

그 후,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는 그 무서운 동굴에서 빠져 나왔다

어머니가 떠나시고  
비가 몹시 내리던 날 밤, 나는  
문밖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축축히 아버지 지나간 자리  
반쯤 타다 말고 쪼그려 앉은  
담배꽂초 하나가 보였다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나와서 마음이 아픈 것이다

눈물은 가슴보다 먼저 아는 것이다

슬픔이란 이렇게  
가슴 속 깊은 곳에 들어서  
소리 없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눈물이란 이렇게  
저 깊은 곳에서 아무도 몰래  
슬픈 마음을 삼키고 있다는 것을

너절하게도 울지 않으면  
불붙어 까만 가슴이 타기 때문에  
눈물이 씻어 주는 것이다

그 가슴 한가운데는 항상  
불 화덕이 산다

그대여, 그대는 혹여 아시겠소  
밤이면 밤마다 은빛 세상에 펼쳐놓고  
새하얀 눈썹 휘날리며 날아가는  
달의 마음을,

가만히 보시구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날 때마다  
그윽한 눈빛이  
물결에 나부끼는 것을

그러나 그대여  
아시려는지 모르겠소

누구나 외로워질 때  
깊이 베인 상처들 다 벗겨 내고  
그 아픔을 감싸 주는 그가  
정작 외롭다는 것을

이 밤도 은하수 건너 저 멀리서  
누군가를 위해 홀로 돌고 있을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지금껏 내 욕심만 채우려고  
그저 복 달라고만 했잖소

기다리는 이 없는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돌아  
망막한 우주로 쉽 없이  
지구를 끌고 가는  
저 외로운 달.



이랴, 이랴, 아버지  
이른 아침, 무거운 소 몰고 가신다

뚜벅뚜벅 소와 같이 신작로를 가로 질러  
무밭에 섰다

한평생 맨땅과 씨름하는 아버지  
어려운 시절 고시에 합격하고도  
소원이던 회전의자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늘 푸념을  
소에게 쏟아 붙는다  
이랴, 이랴,

아버지가 소를 몰고 가는 것인지  
소가 아버지를 끌고 가는 것인지  
저녁노을이 붉게 익어갈 무렵 열 댓 마지기 다 갈고는  
집에 들어오시면  
'너희들은 죽어라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출세해야 한다'  
'농사 짓는 거 이거 마지막이다'  
'빠골 빠지게 일해 봐야 입에 풀칠하기 바쁘다'  
'아이구, 이놈의 팔자야'

밥그릇을 위해 발갈이 하시던 아버지  
하지만, 늘 당당하시고 태산 같던 아버지  
그 태산 같던 양어깨가 활처럼 휘었다

오랜 세월, 굽은 등 위로 비구를 타고 넘는 동안  
밤새 열정과 고통과 절망마저 끌어안았을  
그 굽은 팔뚝의 힘으로 쓰리문을 활짝 열었을

해 붉게 떠오르는 아침,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가 그림다

질주하는 바람들,  
솟구치는 들풀들,  
새들의 노랫소리들,  
이것들은 땅에서 사랑한다고 소리치는  
침병이다

땅속으로 실뿌리 뺨는 나무들  
뿌리는 검붉게 자라고  
나무와 잎 사이에 마디마디 뼈가 자라고  
땅 기운이 나무를 타고 오를 때  
겨울이 떠나 은둔의 생명은 잠에서 깨어  
뚜벅뚜벅 언덕을 넘어온다

씨앗이 어딘가에 떨어져  
한 발 한 발 가파른 절벽에 발을 딛다가  
연약한 몸이 힘겹게 산 아래쪽으로 기우뚱,  
위태롭게 기울어진 것은 단지, 그의 몸이  
비탈진 곳에 있기 때문만은 아니리라  
연약한 나뭇가지에 앉아 있던 새들은  
훌쩍, 날아 무게를 덜어주고  
영험한 햇빛에 발화되어  
온몸은 뜨거워져 흙으로부터 눈부시게 솟아  
당신과 나 사이에 비죽비죽 비집고 나와  
상처를 치유하며 온다

그것은 초록으로 건너와 피는 꽃과 같이  
내 창문을 넘어 내려앉는 햇빛과 같이  
한 시대가 밀려가고 한 생애가 끝나는 것처럼  
바람 속에서 바람을 따라 아픈 줄도 모르고  
봄은 그렇게 오는 것이다



떨렁한 빌딩 한구석  
줄을 서 있는 사람들 문득  
걸음을 멈추고 바라본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 . . . .  
원하시는 거래를 선택하십시오  
원하시는 . . . . .

주문을 외우듯이 지껄이는  
현금자동 인출기 앞에서  
구걸하듯 머리를 숙이고  
불러주는 대로 꼬박꼬박 순종하며  
지문을 박는 사람들

금액을 눌러 주십시오  
금액을 . . . . .

그 순간 나는 보았다  
청량리 역 앞에 길게 늘어선 이들처럼  
싸늘한 기계 앞에서 두 손 공손히 모으고  
개처럼 기다린다  
카드를 받으십시오  
카드를 . . . . .

이제 굴욕은 끝났다  
욕망이 포뎃자루를 어깨에 메고  
건물을 나서는 순간, 왠지 허전하고  
허망하다

이 고리는 끊을 수 없는 연(緣)이다

시냇물이거나 개울물이거나  
흐르는 물길은 따로 있어  
큰 강으로 가는 물길이 분명코 있다는데  
그 강이 이 세상 어디에서 시작하든  
길을 가다가 천천히 여러 빛깔로 흘러  
고기밥 짓는 수초 사이를 지나서  
외롭게 저 홀로 흘러들어 길을 지나  
뚝 이나 산모퉁이나 휘돌아 부딪치며  
수없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더니  
이제야 흐려진 이성을 바로 잡으려는지  
짐 하나씩 벗어놓고 가는  
사람들.....

나를 따라 또 한 사람이  
납작 엎드린 채 따라오고 있다

뛰면 뛰고 걸으면 걷고  
나의 향적을 따라 늘 동행하는 그는  
질기게 따라오다가 골목길에 들어서자  
깜충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

몸에 또 하나의 몸  
한 몸은 서로 밀어낼 수 없다  
한 치도 어긋남 없이 성큼성큼 걸어와  
내 몸 뒤로 숨는다  
알 수 없는 그 무형의 동행자 끝내  
떨쳐버릴 수는 없다

저 그림자는 인연이라서  
내 꼬리를 물고 끝까지 따라온다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끈질긴 집념이  
그에게도 숨어 있다

죽어야 떨어질 그림자  
내가 죽으면 같이 따라 죽을 저 그림자  
얼굴이 없다  
즐기찬 외 사랑에 진저리나지만  
나와 함께 죽을  
내가 죽어야 죽을 내 사랑이다

내 사랑 검은 분신이며!  
네가 있어 진정, 나는 죽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날 저녁 노을은  
내 심장처럼 붉었다

노을은 냉정하게  
나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눈짓만 줄 뿐이다  
느낌으로  
나를 더욱 유혹한다

노을처럼 번지는 수천만 가지  
내 생각들  
무엇이 내가 여기까지 온 뜻이냐  
응답하기 전에  
어둠은 밀려오고

풀무 속만큼이나 탱탱해지는  
그 어둠 속의 상념들은  
부풀어 터질 듯한데

해는  
기억을 삭제시키듯  
산 등짜를 사정없이 밟고 넘어간다

새벽아침

뿌영게 안개 덮인 공지천 호수에 백로 한 마리  
화룡점정畫龍點睛처럼 서있다

잔잔한 수면위에 발을 들고  
조금도 움직임 없이 묵도에 든  
백로의 경건한 수도시간

그러나, 저 수면 아래엔  
걸 다르고 속 다르게  
너나 할 것 없이 당리당락黨利黨略으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 같은 세상이 그 아래도 있겠지

저 고요한 수면의 백로  
그대로 한 장 복사 떠  
이 세상 한 복판에 전시하고 싶다

너도, 나도  
저 수면처럼 바르고 정직하게 살라고  
저 수면의 색깔처럼 투명하게 살라고.

갈지(之)자를 그리며 비틀비틀 나는 걸어간다 금세라도 폭 꺼질 것만 같은 불안한 길거리를 두리번거리고 사방을 헤매며 나는 걸어간다 한여름 향기 없는 얼굴로 서 있다 그저 해만 바라본다 이제는 어디에도 나는 없다 바람만이 그 길을 알까,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보겠다고 발버둥 쳐보지만 그나마도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까지는 튼튼한 끈을 쥐고 있었다 그 끈을 놓고 나서부터는 무엇 하나 잡을 수가 없다 온실 속에서 녹을 받으며 그저 순탄하게 종살이를 하는 동안 밖의 세상은 너무 험악해졌다 높은 벽만 보인다 내가 가는 길은 아득하게만 보인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일까 차츰 캄캄해진다 단단한 혈서라도 한 장 써야겠다 길목마다 붉은 낙서가 가득하다 가슴은 금세라도 터질 것만 같다 고독에 익숙해지고 슬픔이 폭풍처럼 몰려와도 분노가 도시를 삼킨들 무슨 소용일까 그저 부질없는 일, 오로지 밥을 찾아야만 한다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종일 피멍을 참아내며 발이 부르트도록 나는 걷는다. 밥그릇을 찾는 그 순간까지 비틀거리는 발을 멈추고 자꾸 허공을 응시한다 두 눈 벌겁게 뜬 대낮에 거리를 헤매는 사이 뜨거운 아스팔트가 벌겁게 발작을 한다

해가 지면서  
틈서리 어디선가  
귀뚜라미 노래한다, 점점  
더 크게

가슴 한편엔  
설움이 차고 든다

문득, 네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오자  
사람들이 빠르게 건너가고  
건너오는 사람들

미치도록 날뛰던 마음속의 메뚜기  
그러나  
조용히 앉아있다

가을 햇살이 텅구는 오후  
낙엽이 어지러이 몰려다니는 길을 걷는다

이 몰려다니는 낙엽을 밟으면  
잠깐 보이는 유년시절  
노란 은행잎  
책갈피에 끼워 넣고 도란거리다 떠난  
너를 생각한다

이 쓸쓸함이란  
다만, 계절 탓이라고 하지만  
네가 없는 이 풍경 속엔  
허공이 더 크다는 걸  
난 안다

너는 알고 있지?  
가을과 겨울의 중립지대에서 벌어지는  
생존의 시간을

저 높은 산을 봐,  
나무들도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잖아  
그러다 못해 그 앙상한 나뭇가지마다  
하얗게 덧칠을 하고 있잖아,  
다가오는 흑한은 두려운 게 아니야.

이 생생한 풍경 속에서  
너와 함께  
온 하루 거닐고 싶다

몸과 마음이 공중에 한동안 뜬 채  
그리운 열병으로 뒤척이는 사이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다

몇 년 전,  
새로운 꽃씨 하나 심겠다며  
민들레 훌씨처럼 날아간 딸아이  
그동안 먼 타국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움과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고  
인고의 시간을 보냈을 그 시간은  
그냥 스쳐지나간 시간이 아닐게다

집에 들어서니  
소꿉놀이처럼 차려진 방 안에서  
그간의 모습들이 보인다

그 집에 머무는 동안, 나는  
아주 꿈 같은 잠을 잤다  
이튿날 아침, 낯선 곳에서의 생경함이  
딸 아이의 얼굴과 겹쳐진다

여간해서 힘든 내색을 앓는 아이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아이  
한 생각을 죽이면 다른 한 생각이 또 일어나  
어릴 적 기억들과 교차하고  
외로이 저홀로 모뎀발로 서서  
한 발 한 발 힘겹게 오르는 모습이  
안스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

세상 그 누구의 삶이든  
아프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던가  
이국에서의 첫날 아침, 나는  
그런 생각을 끌어안으며  
조용히 커튼을 연다

활짝 핀 꽃잎들이  
봄별을 만지고 있다

부끄러운 웃고름 풀어내고  
달덩이 같은 젖가슴 드러내는 모습에서

어여쁘고 향기 나는  
봄 처녀를 보는 것만 같다

봄별 쏟아지는 아지랑이 언덕길에  
벗꽃이 만발하고

등불 밝히 듯  
봄별이 하얗게 떨어진다

나는 집을 떠나기 전까지 아버지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아니 아버지 등을 타고 다녔다 일 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다 짹짹 갈라진 가죽 안장에는 아직도 온기가 남아 있어 내 사타구니가 따뜻하게 덮혀온다 한평생 자가용으로 장마당에 갈 때면 어머니를 뒤에 태우시곤 싱글빙글하시던 그 자전거 안장에는 아버지의 청춘과 즐거움 쓰라림도 묻어 있다 자전거는 내가 중학교를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주로 내 차지가 되었다 그렇게 자전거는 자연스레 대물림이 되었고 수십년이 지나고 나서도 팔순을 넘긴 아버지가 마실 가실 때 타고 다니셨다. 헌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터는 그 자전거 안장의 온기도 사라졌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네발 달린 자가용을 타고 다녔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아버지의 평생 벗이었던 그 자전거, 햇살이 잘 들던 앞마당 한 구석 아버지 헛기침 소리가 허공을 맴돌던 그 자리에서 귀귀하게 썩어가는 자전거 바퀴살 사이로 간간히 구겨진 기억이 마약 달려와 아버지의 싸르르한 생이 환생처럼 보인다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안개처럼  
촉촉하게 들려옵니다

더 이상 말도 못하고  
끊기듯 잇는 목소리로  
줍지 않느냐고 묻고 또 묻습니다

한겨울에  
그 추운 곳으로 떠나는 남편을 따라나서며  
손을 놓지 못하던 그녀가  
자욱한 안개처럼 젖어와  
내 귓가에 방울방울 떨어집니다

사흘간의 시간이  
그녀에게 어떤 나날이었을까  
나에게 묻습니다

나에게도 그토록 무서운 시간이었는지  
이제라도 남은 세월  
행복하게 살자며 티끌만치도 아프지 말라던  
그녀의 간절한 새벽기도는  
사랑입니다

그녀의 가슴에 숨어 있던  
강처럼 흐르는 커다란 그리움이  
수화기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어느새 아린 나의 가슴도  
눈물 젖은 손수건이 되어  
그녀 곁으로 달려갑니다

새로운 텃밭에  
꽃씨를 심고  
정성껏 물을 주는 그녀

즐기와 뿌리 사이를  
오가는 시간 속에서  
부처가 된 여자

나에겐  
어디에도 없는  
하늘같은 아내

어쩌면 어둠이 사라진 뒤 오는 아침은  
아무도 몰래 긴 밤을 저 홀로 태우며  
무덤 하나를 넘어왔을지 모른다

밤새 가깝고도 먼 우주 속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떠돌다  
다른 곳에서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녹아  
상처를 덮으려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아침이 오기까지  
빛은 얼마나 먼 행성에서 날아오고 있는 것인가  
그 빛의 세월이 내 눈까지 날아오는 데 걸리는 생은 또한  
얼마나 더 자신을 태워야 하는가

고요의 바닥에서 솟아난 샘물이  
때맞춰 몸 밖으로 밀어내듯  
커튼 사이로 빛이 새 넘어오는 것은  
생이 하나둘 떠올라 풍선처럼 날아가기 시작하고  
날마다 바깥까지 가려는 사람들은  
사바娑婆로 들어가는 것이리라

오온五蘊\*이 막 시작되는 아침에.

\*오온(五蘊): 불교에서 생멸변화 하는 모든 것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어느 날 나는

흰 봉투에 든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았다

‘辭令狀’

‘김우용 OO팀장에 補 함’

이튿날 책상을 정리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발령 부서로 갔다

1차 구조조정이 끝난 직후여서 분위기는

어딜 가나 뒤숭숭 어수선했다

요즘은 누구나 칼끝에 서 있다

같이 책상에 앉아 있어도 어느 책상이 날아갈지

너도나도 힘들게 한다

어느 날은 갑자기

결재서류를 두고 가라고 해서

영문도 모른 채 두고 나왔다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았다

드디어 2차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을

발표날이라는 걸 뒤늦게 알고는 나는 말벌에 쏘인 것처럼

온몸이 점점 굳어버렸다

그것은 전혀 내 의지와 상관없는

몇 아침 영웅주의자들의 횡포가 발로였다

이쯤 되면, 뭔가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 날, 나는 보직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하얀 봉투를 받았다

‘징계통지서’

나는 갈 때까지 가보는 심정으로  
무작정 동해로 간다  
파도 끝에 대고 목청껏 소리 질러

판을 깨는 자 누구냐!  
누구냐?  
왜?

그리고 몇 년 후  
나는 또 하얀 봉투의 인사발령통지서를 받는다

‘辭令狀’  
‘김우용 OO 국장에 補 함’

살았다

너와 함께 라면  
너를 사랑할 수 있다면

너와 나 사이 그 환승사이에  
너와 동행할 수 있다면  
결단코 바람처럼 보내지 않으리

여름이든 겨울이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거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가 머물다 소리 없이 스러지지만

오늘도  
그대 떠난 텅 빈 자리엔  
무심하게 허공사이를 떠돌고 있나니

나는  
지금 이대로  
그대를 사랑하리라

그 뜨거운 소리에 여름의 문이 열리고  
폭염으로 달궈진 감촉이  
가랑이 사이로 뜨겁게 지나간다

햇살 따가운 한여름  
참매미 소리 우렁차다

곰실천 산책로에 많은 사람들  
따갑게 뿌려지는 햇살에  
긴 호흡을 내 뿜는 소리가 들린다

허청허청 공지 냇가로 흘러들고  
바람의 입김조차 없는 무더운 날  
백로 한 마리 모든 사념을 벗어버린 듯  
물가에 서서 수도 중이다

얼마나 기다렸던가  
껍질을 벗는 울음소리를  
절정으로 치솟는다는 의미를  
여름은 가고  
쏟아지는 소나기에  
마지막 남은 장미 꽃잎 하나  
붉게 떨어진다

허허로이 높은 산에  
오롯이 피어난 구절초  
당신을 봅니다

구월이면 마디마디 꽃피워  
산과 들에는 별꽃 천지  
가을의 전령사처럼  
황홀 합니다

초겨울서리 새벽처럼  
눈꽃처럼 환하게 다가오는 당신은 오히려  
겨우내 안방마님들이 당신을 흠모하며  
탕약으로 남모를 속내를 다스렸다지요

차갑고 흥흥하게 젖어가는 아랫도리를  
불어오는 봄바람처럼 후답하게 덥히고 말려  
심심 골 양지 뜰에 화색이 돌게 하였지요

추운 밤을 안온하게, 더운 염증을 냉정하게  
메우고 덜어주는 환한 당신에게  
한구석에 설핏 양팔을 들어 올린 쑥부쟁이는  
만세, 만세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곳,  
비탈진 곳에 피어 있는 당신  
시름에 잠긴 마음까지 확 풀어 넘길  
이 아름다운 꽃 또, 언제 피려오

오늘도  
남몰래 너를 본다  
해마다 그랬듯이  
초록 불이 켜진 거리를 지나서  
한 송이 꽃이 되어  
너는 오고  
나는 먼 새벽하늘 밝히는 붉은 태양이  
서녘으로 돌아누울 때까지  
너만을 바라본다  
내 앞을 지날 때마다  
눈부신 그대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언제나 황홀했지  
가끔씩은 그대에게  
무어라 말하고 싶지만  
나의 말을 알아먹지 못하는지  
손끝하나 닿지 않고  
숨조차 멈추었는데  
절정의 순간 미끄러지듯  
당신이 떠나고 난 후  
여전히 너의 체취는 촉촉이 남아있네  
당신 없는 봄날은  
베일에 가려진 어지러운 쑥대밭,  
꽃 지고 난 그 후  
모든 쑥대밭이 꽃이다  
쑥대밭이 된 내 마음은  
그리움을 넘어서는  
짝사랑이 아닐까

꽁꽁 언 찬바람  
헐벗은 몸을 비벼대는 것이  
눈꽃 피는 곳마다 아프겠다

가지마다 핀 꽃  
하얗게 벌린 양팔이 춥겠다  
온 몸이 마음부터 춥겠다

엄동 혹한일수록  
상흔처럼 더 아프게  
활짝 피는 눈꽃

추운 겨울  
깜깜한 밤이 되면 모두  
아픈 꽃 피는 천지가 된다

창 넘어

마음에 밝히는 화분 하나,

한여름 땀땀 시끄럽게 울던 창가 그 자리에서

몇 년 동안 좌선했던 백낭금

마침내 깊은 잠을 털고 일어나

길고 긴 동토(凍土)를

넘어왔네,

그 안에

어린 영령들의 씨를 품고

기약 없는 세월을 넘어

드디어 멩에를 벗어던지고

밤사이 저 국경을 넘어왔네,

주머니 속

고이 쥐고 있던 빛을 꺼내어

이 흑한에 펴보는 꽃,

사슴의 눈 같은 그녀가

사선을 넘어온

저 눈부신 몸짓.

꽃집에 들렸을 때  
그녀와 나는 인사도 없었고  
웃김조차 스치지 않았다

어느 날, 우연히  
그녀를 만났을 때  
서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난의 향기를 쫓으며 난초를 고르고  
테라리움에 아름 뜰 가꾸던 이가  
바로 그녀였다

그녀를 알고 난 후부터는  
새로 들어온 란(蘭)보다도  
그녀가 왔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난초를 고르는 척하면서  
꽃집에 가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고  
그녀를 자주 만날 수 있었다

그러고는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그녀와 나는 꽃과 나비처럼  
파릇한 향기를 가꾸기 시작했고

나는 그녀에게  
그녀는 나에게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내 마음은 어느 생각 끝에서  
한없이 허공을 날아다닌다

공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꿈을 꾸듯 훨 훨  
하늘 높이 난다

기쁠 때는 백만장자도 됐다가  
우울할 땐 가난뱅이가 됐다가  
무한한 나의 생각  
그것은 나의 푸른 공상(空想)

산다는 건 스스로 움직이는 것  
육신은 에너지를 태워 움직이지만  
영혼은 생각으로 산다

나는 등불을 켜고  
하늘 높이 헤엄친다

밤마다 강은 검푸른 배경과  
반짝이는 별에  
동행자

달빛 머무는 수면 위  
폭풍은  
잔물결을 조금씩 밀어내고

한 무리의 고기떼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곳은 접근 불가 지역,  
댐을 넘지 못한다

흘러가는 푸른 말들이  
수면위로 튀어 올라와  
밤사이 지나간 흔적의 안부를 묻고는

고요한 새벽안개 넘어  
갈증의 대지를 끌어내는  
소양강, 그 줄기

줄기마다  
오늘도 물길을 따라  
아침 새 길을 열고 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빨리 일어난다  
어스름이 내리고 집으로 들어서면 그는  
그의 몸이 아니다  
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이 그러하다

새벽이면 대문 활짝 열고 헛기침 내뿜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밤이면 속앓이 하다가  
밝다 못해 새까맣게 타서 차라리 환해지는 것은  
얼마나 당신을 태운 것일까  
한 번쯤 속을 보일만도 한데  
그는 묵묵 말이 없었다  
늘 지치지 않고 푸른 바람을 불게 하던 그  
그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

상고대 피던 어느 날 아침,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긴 강을 건너가시는 날까지 나는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늘,  
소멸하고 소생하는 하루의 죽음이 지나갔다  
조금 전 잠이 들어  
쏟살같이 어디론가 떠난다

개구쟁이 시절 친구들도 만나고  
한 대 쥐어박기도 하고, 코피 나게 얻어터지고는 울다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서니  
텅 빈 방엔 아무도 없다

등실 피어오르는 어머니 얼굴  
연두색 치마저고리를 입고 먼 물마루 위를  
천천히 걸어오신다

나는 조금만 더, 조금 더 외치지만  
끝내 희미하게 스러지며 보이지 않는다  
그때, 뭔가를 슬그머니 내 손에 꼭 쥐여 주는  
꼬깃꼬깃 손때 묻은 쌈짓돈, 그리고  
젓 냄새가 배어 나는 하얀 편지지  
받아들고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다 있었는데  
잔상조차 없다

번쩍, 깨어난 축축한 꿈자리의 손길  
간절하게 보고 싶었던 어머니  
미처, 드리지 못한 게 더 많은데  
마져 주지 못한 사랑을 내 손에 꼭 쥐여 주시고  
떠나가네

긴 긴 겨울밤,

그분이 다시 찾아 오셨네  
내게 할 말은 아무것도 없다고.

꽃 피는 계절이 오면  
돌아와 주신다고 맹세한 계절입니다  
앞산에도 뒷산에도  
내 마음에도 환하게 피었습니다

긴 세월 건너던 꽃자리 저리 아름다웠나요  
조각조각 껍질 벗는 만삭의 진통은  
끈질긴 기다림 터질 듯  
노란별처럼 꽃망울이 태어납니다

시간의 저 끝에 있는 그때처럼  
첫사랑의 숨결이  
마디마디 매달려 있습니다

연상의 여인을 흠모하며 가슴 졸이던  
별 앞 떨군 그 자리에  
알싸한 향기로 다시 피었습니다

# 바람은 길을 묻지 않는다

블로그 숲으로의 초대 <http://blog.daum.net/hldad>

저자 김우용 시집

발행일 2013.02.25 00:16:38

 블로그